중국, 올해 성장목표 "5% 안팎"

리커창. 마지막 전인대 업무보고 CPI 상승률 목표는 3% 이내 재정적자 GDP의 3% 목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 률 목표치를 1994년 이래 가장 보수적인 '5% 안팎' 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보고에 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 산(팬데믹) 영향 속에 목표치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 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 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날 리 총리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 표를 3% 안팎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을 높이겠 다며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 (GDP)의 3.0%로 설정했다. 작년의 목표치인 2.8%에 비해 소폭 상향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올해 약 1,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였던 1,100만 개에서 상향 조정

또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 다'는 뜻인 '온자당두·온중구진'을 견지할 것 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총리는 또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독립 반 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 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 의가 개막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 에 대만과의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 겠다고 부연했다.

2013년 2월 중국 국무원 총리 자리에 오른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기 10 년'에 걸친 총리 임기를 사실상 마쳤다. 후임 총 리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당 중 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적이다. /연합뉴스

호주 경찰, 해상서 코카인 2.4t 실린 선박 나포

9천억 규모…조직원 12명 체포

호주 경찰이 미국 경찰과 합동 작전을 통해 시 가 10억 호주달러(약 8,808억 원) 규모의 코키 인을 압수하고 국제 마약 조직원 12명을 체포했 다. 5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마약단속국(DEA)은 지난해 11월 남미 해 안에서 코카인 2.4t을 싣고 호주 웨스턴오스트 레일리아(WA)주로 향하는 선박을 나포했다.

이들은 12월 28일께 WA주 인근 해상에서 호 주 내 마약 조직에 이 코카인을 넘길 예정이었 다. 이에 WA 경찰은 이 시기에 나포한 코카인과 동일한 형태의 포장재를 사용해 가짜 코카인 꾸 러미를 만들었고, 이를 호주 서부 퍼스에서 서쪽 으로 40해리 (약 74.08km) 떨어진 해상에 투하했 다.WA 경찰은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이를 관찰 했고, 얼마 후 두 척의 보트가 나타나 경찰이 투 하한 가짜 코카인들을 건져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마약 조직이 머무는 호 텔등을 습격했고 지난 1월 13일까지 총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200만 호주달러(약 17억 6,000만 원)가 넘는 현금다발도 압수했다.

호주 경찰은 이번 작전이 호주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이라며 WA 경찰과 호주 연방 경찰, 미국 DEA가 6주 동안 공조를 통해 거둔 성과





해상에서 가짜 코카인 투하하는 WA경찰(위). 호주 WA경찰이 마약상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호주 WA경찰 제공

라고 설명했다.

콜 블랜치 WA 경찰국장은 이번에 적발한 이 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관됐으며 호주 전 역으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호 주 내에 마약상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라고 말 /연합뉴스

CNN "북한 식량사정 악화 아사자 속출 우려"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하면서 아사자가 속 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루카스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유엔과 한국 정부 모두 교역현황과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공급이 "인간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양 아래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트와 군을 우선시하는 북한 관행상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민들에게 식량이 동등 하게 분배된다고 해도 "굶주림과 관련된 죽음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폐쇄성 탓에 확인이 쉽지 않은데도 이

러한 분석의 진위를 의심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 는 실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전에도 북한은 인구의 절반 가까 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지난 3년 간 국경을 봉쇄한 탓에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 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무역을 최소화하는 등 자 국을 더욱 고립시켰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기 록적인 빈도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자원 을 고갈시켰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녀 다섯 살해 벨기에 여성, 자진 안락사

16년 전 범행으로 종신형 선고

16년 전 자녀 5명을 살해해 벨기에 사회를 충 격에 빠뜨린 여성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달 말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영국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네비브 레르미트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40 ~14살 난 아들 1명과 딸 4명을 살해했다. 사건 직후 레르미트는 자신도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 으나 실패했고, 곧 구급차를 불렀다.

2008년 벨기에 법원은 레르미트에게 종신형 을 선고했고, 그는 복역을 이어가다 2019년 정

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레르미트 측 변호사는 그 가 자신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한 채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 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 라 정신적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 되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밀리에 마로이트는 현지 매체 세이던 2007년 2월 28일 남편이 외출한 사이 3 RTL-TVI에 "레르미트는 자녀들에 대한 상징 적 제스처로 (자녀들을 살해한 날인)2월 28일 안락사 집행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판 당시 레르미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투옥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가 계획된 살인 을 벌였다고 판단해 종신형을 내렸다. /연합뉴스



도쿄마라톤 개최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마라톤에 참가한 주자들이 도청 앞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EPA=연합뉴스

